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하나님의 날, 주 말씀〉

1.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 돌리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고, 금년도 첫날부터 오늘 12일째 말씀을 전하고 예술로 영광 돌리고 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15일 동안 전적으로 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 우리는 계속 누구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상세계〉를 하는 것이다.
3. 이상세계는 때가 왔어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새벽예배〉 때 이 좋은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새벽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5. 선생이 천재적인 머리가 된 것은 ‘새벽’에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 기적적인 것〉은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축복〉을 ‘새벽’에 주신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이상세계를 새벽부터 하시기 때문이다. 마치 부모와 애인이 새벽 아침에 출발할 때 챙겨주듯 새벽에 챙기는 것이다.
6. 〈이상세계〉는 모든 인류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세계다.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 모두 더 이상적인 삶을 원하고, 더 이상적인 사랑을 원하고, 더 이상적인 세계를 바란다.
7.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육적으로 이상세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

만, 그것은 너무 짧고 너무 작다. 재벌가들도 계속 잘 누리고 사는 것 같아도 개인을 보면 병과 고통, 여러 사업과 인생문제, 곤고함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빠져있다.

8. 모든 사람들을 겪어보니, 사람들이 이상세계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찾지만 실상 보면 곤고하고 만족치 못하고 별로 좋은 것이 없다 하며 산다. 어떤 자는 “나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만족은 했으나 영원한 만족은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더 이상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영원한 만족을 하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는 죽을 때까지 기쁘고, 고통과 어려움 힘든 일을 당해도 그렇게 좋다.” 했다.

9.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그렇게 이상적이고 엄청난 것이 없었다고 했다. 이는 신앙을 하위급으로 했기 때문이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도 100%를 넣어야지, 조금 넣으면 가다가 말게 되는 것이다.

10. 하나님, 성령, 성자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만족하게 해야 된다.

11. <이상세계>는 전능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서 성령의 감동과 성자의 말씀으로 살 때 이루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이상세계>다.

12.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하며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이 <시대의 이상세계>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본인은 만족하고 더 이상 없는 복을 누린다 해도 이상세계가 아니다. 왜?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이상세계이겠느냐.
13. 절대 영원히 사망에 가지 않고, 완벽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시켜놔야 ‘이상세계를 누릴 수 있는 자’다. 영혼을 구원시켜놔으면 육신도 이상세계를 누리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상세계를 누린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도 그런 자는 이상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14. 소가 푸른 초장에 뛰어놀아도 오늘을 못 넘기고 도살장으로 팔려 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상세계이겠느냐. 거기서 빼냈으면 ‘삶’으로 가니 이상세계를 이룬 것이다.
15. 중고등부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상세계에 참여한 것이다. 선생도 중고등부 출신이다. 그리고 주일학교 출신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16. 선생이 초가집에 살 때, 예수님께 굉장히 혼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축복받고 사는 집구석이냐? 창피하다.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이게 뭐냐. 축복 받았으면 다 찌그러지는 초가집에서 살겠느냐?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전부가 축복을 못 받고 사는구나.’ 알았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국이지.” 하는 찬양처럼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천국인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 뜨끔하게 혼나고 “다 때려 부숴라. 다시 짓자. 창피하다. 나 예수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다.” 하셔서 부모한테 얘기도 않고 초가집을 때려 부수고 <함석집>을 지었다. 그래서 동네사람마다 구경하러 오고 <이상세계>라고 좋아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울 구경을 시켜주셨는데 새로 지은 함석집도 서울의 화장실만 못 했다. 그래서 동네사람이 구경 올 때 창피해서 구경을 못 하게 했다. 처음 <초가집>은 ‘구약 같은 세계’다. <함석집>은 ‘신약 같은 세계’다. 그 후에 또 때려 부수고 성자께서 <청기와 집>을 지어주셨다.

이와 같이 집부터 확 달라지는 <이상세계>를 이룬 것이다. 그러면서 또 성자를 모시면서 축복해 준다는 대로 운동장을 넓혀서 하나님의 궁을 만들어놓았다.

17. <월명동>은 동그랗게 분화구같이 만들어 났다. 이 지역에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태초부터 계획적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실제 축복을 받으며 이상세계를 한 것이다.

18. 예수님께서 “초가집에 살면서 이것이 축복이냐.” 하셨을 때 쇼크를 받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뭔가 잘못 됐구나.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믿다가 천국도 못

가겠단다. 땅에서 잘돼야 하늘에서도 잘된다.’ 하고 깨달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살지만, 이성의 생각과 저성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선생은 그때부터 ‘이상세계가 아니었구나. 마음만 자체 이상세계였구나.’ 깨닫고 실제로 이상세계를 했다.

19. 이상세계를 크게 보면 <때가 와야 될 것>은 ‘때’가 와야 된다. 역사로 볼 때 구약 4천년이 끝났을 때 신약역사가 시작됐다. 구약에도 그때마다 그 나름대로 이상세계가 있었지만, ‘구약 주관권의 이상세계’였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엄청난 이상세계가 아닌 것이다.

20. 이사야 11장 말씀은 <새로운 세계의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또 이와 같이 이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시대>에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 이상세계를 내놓아보라 하면 우리는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세계를 내놓아보라 해도 역시 신약권 속의 이상세계를 보인다. 말씀 자체가 신약권 세계이기 때문이다.

21.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구촌을 다 멸하고 노아 여덟 식구만 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법을 준 곳만 심판하신다. 모르고 무식하면 배워라.

22. 노아 홍수 심판 때, 방주 만드는 말씀은 노아에게만 했다. 그래

서 그 주관권만 해당되는 심판이었다. 만약 전체 홍수 심판이었다면 지구촌에 퇴적층이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퇴적층이 없어졌다. 학자들은 왜 이 지역만 퇴적층이 없어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선생이 가르쳐주니 선생을 과학의 선지자라고 하였다. 또 지구가 몇 개인지 묻기에,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곳은 자궁 하나밖에 없듯이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 하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었다.

23.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깜짝 놀라고 권세있다 했듯이 선생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떤 자는 선생에게 세계적 조경가라고 본인의 집도 쌓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선생은 하나님 것만 쌓는다. 하나님이 계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은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해주신다. 선생 것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것을 같이 쓰는 것이다.

24. <이상세계를 이룰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세 분이 같이 해야 된다. 신약시대 때도 땅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하셨다. 성자는 항상 땅의 구원을 총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총 책임을 하시고, 성령은 감동의 신으로 구약부터 계속 하셨다. 구약 성부 시대 하나님, 신약 성자 시대 예수님, 성약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구약 때도 신약도 성약 때도 세 분이 와서 땅에 보낸 메시아와 하

고,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와 하는 것이다. 절대적 이상세계를 이렇게 이루신다.

25. <이상세계를 이룰 때>는 반드시 ‘배경’을 정한 곳이 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동산에서 하려고 했지만 깨졌다. 그리고 노아 때는 아라랏산 밑에서 하셨다. <이상세계>는 ‘심판’이 끝나고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26.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서 그렇게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여행만 다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약 90%가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감사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다. 선생은 늘 볼 때마다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관광 문이 다 닫힐 것이다. 봐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닫힌 지 1년이 됐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달들 하고, 여러 병들이 엄청나게 걸렸다.

그러나 섭리사는 큰 영향을 안 받았다. 그렇게 관광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섭리사는 관광하려면 월명동에 다녔다. 민족 안에서 관광을 다니니 민족도 좋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 궁을 다니니 좋아 하신다. 늘 월명동에 오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운동과 예술 등 각종으로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한다 하셨다. 이와 같이 세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

27. 많은 나라들이 국교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축구에만 미쳐있다.

“할렐루야! 예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들어보았다. 선생은 그걸 계속 지켜 본 것이다. 선생은 저렇게 안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섭리사는 늘 작으나 크나 운동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열심히 할게요. 승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한다. 하나님은 세계적으로 그렇게하기를 원하는 데 안하니 더 화가 나신 것이다.

28. 크게 단체별로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 “만군의 하나님! 뽕큐 베리 머치!”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한마디면 하나님이 푸시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모두 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수십억 명이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고마워하고 기뻐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이 정말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최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느냐. 세상의 부끄러움을 참다가 영원히 부끄러운 세계로 간다.

29. 선생은 그렇게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부끄럼을 많이 탔지만 열차 안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계속 외쳤다. 항상 하나님은 외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부끄럼 없이 외치니 하나님도 선생을 부끄럼 없이 대해주고 자꾸 높은 차원에 얹어놓으셨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민족적으로 해야 된다. 단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절대 믿고 섬기고 살면 안 무서운 것이

다.

30.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생이 성령께 울며불며 민족의 죄를 회개해달라고, 섭리사 있으니 안 된다고 기도하니 3일 째 되는 날 하나님이 오셔서 “알았다. 내가 용서 하마.” 하셨다. 그리고서 바로 북한 문제가 확 뒤집어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뜻을 돌리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막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최고 사랑하는 자, 사명자만이 그것을 막는다. 우리 민족도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모두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31. 선생은 한국에서 섭리가 꼭 국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최고의 신부급의 국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일본도 대만도 되고 모두 꼭 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대신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가야 된다.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바가지가 차고 넘치듯 이상세계를 우리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32. 우리는 이 때 더 이상적인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일체 되어서 이상세계를 이뤄야 된다.

33. <이상세계>는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이루어진다. 섭리사는 이렇게 이상세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 시대 말씀을 모두가 믿었으면 다 이상세계가 됐을 것이다. 42년 동안 복음을

다 전해주었다. 그러나 안 오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상세계를 이루고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5년, 10년 가면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34. 이상세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다. 아담과 하와 때 에덴동산이 있듯이, 예수님 때 나사렛이 있듯이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이 필요하다. 또한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뭉친다.

35. 이제는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행해야 된다.

36. <이상세계>는 ‘하나님’ 때문에 된다. 성자 때문에 되고, 성령 때문에 되고, 주 때문에 된다. 주가 없었으면 이 새로운 복음으로 신앙생활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성령이 늘 계시자를 통해서 “선생으로부터 시작됐다.”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37. 만약 지금도 선생이 초가집 산골에 살았으면 모두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놓으니까 ‘되는 구나. 환경도 사람도 만들고 다 되는 구나.’ 한다. 삼위께 딱 일체시켜놓으니 튼튼하다. 선생이 세상에 죽어도 섬리인들은 계속 믿고 섬기고 살게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다.

38. 그럭저럭 하지 말아라. 그럭저럭하면 그만치밖에 못 받는다. 더 많이, 더 엄청나게, 더 웅장하게 신앙의 변화를 시켜야 된다. 금년도 이상세계는 변하는 만큼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39. 다 변화시키고 변형을 시켜야 된다. 절대적으로 튼튼한 신앙자들이 돼야 된다.
40. 섭리사 곳곳에서 늘 잘된다고, 이상세계를 이루었다고 편지가 온다.
41. 월명동의 강아지도 지금 이상세계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강아지가 쓰러졌다. 그때 성령이 “다리를 주물러주어라.” 하는 느낌이 와서 다리를 주물러주니, 일어나서 너무 좋아하면서 뛰어다녔다. 이와 같이 섭리인들도 고꾸라지면 선생이 말씀으로 치료해준다.
42.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세계>를 하자. 신부로서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주를 새롭게 대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 쳐다도 안 볼 것이다. 다른 식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며 주도 다른 식으로 대할 것이다.
43. 중고등부들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뛰고 달리고, 섭리사 전체가 그리하도록 하여라. 생활가운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